중국을 다녀와서

교 사/홍 성 조

1990년 5월 25일 맑음.

수학 여행 전날밤의 설레임에 잠 못 이루는 들뜬 여고생처럼 첫 해외여행에 대한 설레임으로 밤잠을 설쳤던 나는 서둘러 꾸려둔 짐을 챙겨들었다. 쌔근쌔근 아직도 잠자고 있는 명인이와 민기의 볼에 입마춤으로 인사를 대신하고, 건강에 유념하고 많은 구경을 하고 오라는 아내의 배웅을 받으면서 집을 나섰다.

약속된 장소에서 일행과 만나 김포로 향했다. 새벽길은 퍽이나 한가했다. 낯선 곳으로의 첫 여행……. 옛날 우리보다 문명이 발달했던 나라의 고적답사, 낯모르는 외국의 에스페란티스토와의 만남등을 통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워 학생들에게 말해 주리라 다짐했다.

예정된 시간에 이륙한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는 서울은 아름다웠다. 이륙 30분쯤 후, 한 일행과 자리바꿈을 한 나는 한 미국인과 자리를 같이하게 됐다. 몇번을 망설이던 끝에 그에게 실례가 되지 않다면 이야기를 좀 나누자고 먼저 말을 꺼냈다. 오랫만에 미국인과의 기내대화는 나에게 외국여행의 흥미를 한껏 돋구어 주었다. 4년만에 두번째 한국을 방문했다는 그는 괄목할만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한국의 교사로서 뒤떨어진 중국과 발전된 일본을 동시에 보고 받은 느낌을 비교 설명하면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말이 서툴때면 거들어 주면서 이야기를 이끄는 그의 덕분에 세 시간여의 기내 여행이 짧기만 했다. 시간 변경선이 이미 지났음을 까맣게 잊은 채 구룡반도 타이팍 공항에 내렸다.

공항에 마중나온 현지 가이드의 안내를 받아 한국식 불고기 백반으로 점

심식사를 마친 우리는 중국행 열차의 종착역인 구룡차점을 지나, 굴뚝없는 화장터(도시 공해를 고려해 연기는 바닷물 속으로 분사시킴)를 옆으로 돌아 수상족을 둘러보고, 돈과 행운을 의미하는 밋깡나무가 주종을 이루는 빅토리아 공원을 지나쳤다. 그리고 약 2Km의 해저터널을 지나 홍콩으로 가서, 호랑이 기름을 발명하여 일약 거부가 된 사람의 개인 별장인 타이거 밤 공원을 구경했다.

홍콩은 9마리의 용의 형상을 하고 있다는 구룡반도와 해저터널로 연결된 홍콩섬으로 구성된 도시국가이다. 통행차량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운전석은 오른쪽에 있었다. (일본도 같음) 도로주행 실습 차량은 앞 뒤 번호판에 학(學)자를 크게 붙이고 다니며, 면허 받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약 100만원이 들 정도로 비싸고, 어렵다고한다. 교통문제 때문에 가능하면 면허 발급을 안하려 애쓴다고 했다. 홍콩의 멋은, 74층의 중국은행, 66층의 호프엘 센터를 비롯한 재각기 다른 빌딩과 도시 앞 빅토리아만에 떠있는 크고 작은 형형색색의 배에 있었다. 시내 건물 중 같은 시기에 건축했으면서도 외관이 깔끔하게 페인트칠 되고 가꾸어져 있는 것은 외국인이, 낡은 모습 그대로인 것에는 이곳 주민이 거주하고 있었다.

여기에서 겉치레에 관심없는 실속있는 중국인의 정신을 엿볼 수 있었다. 바람이 많아 바지나 저고리의 소매를 꿰어걸 수 있게 만든 대나무 옷걸이가 인상적이었다.

오후 5시 20분.

번호판 두개(홍콩, 중국 통행차량)를 단 차량을 이용하여 약 40분쯤 달려 중국 본토의 국경선에 도착해서 간단한 입국 수속을 밟고 본토에 첫 발을 디뎠다. 말과 글로만 듣고 본 공산주의인 중국 본토.

1978년부터 외국인에게 개방했다는 도시 광주(광쩌우)로 가는 기차를 타기 위해 지하터널을 지나 심천으로 가는 버스에 올랐다. 달리는 버스에서 내다본 도로의 양쪽 산 정상에는 경비초소와 철로망이 높게 드리워져있어 군복무 시절의 38선을 생각나게 했다.

홍콩과 중국과의 많은 화물차량(물론 두 개의 번호판을 달았음)의 통행으로 도로가 많이 파손되어 포장도로임에도 자갈길을 연상케 했다. 요동치는 버스에서 자신을 소개한 현지 안내인은 조선족 출신으로 북한에서 몇년간 어학교육을 받았다고 하면서 남조선 관광객을 처음 안내하게 됐다고 상

기된 표정을 띄었다. 그러나 저녁식사 후 기차를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감정이 서로 통하지 않아 많이 어려울 것 같았는데 너무나 좋았다고 이별의 아쉬움을 남기면서 눈물을 글썽이는 그에게 우리는 한국적 냄새가 물씬 풍기는 선물을 안겨 주기도 했다.

심천에서광주(광쩌우)까지165Km를 2시간 30분정도 달려야 하는 기차의 중국인 요금은 16원(중국 화폐 단위로 1원은 약 160원에 해당) 인데 비해 외국인은 내국인과 완전히 구별되어 있었다. 심천의 3급 호텔(무궁화로 호텔의 급수를 표시하는 우리와는 달리 별이 세개 붙어 있었음)에서 잘 먹은 식사(약 30원) 때문인지 곧 졸음이 왔으나 차량안의 너무도 많은 모기떼에 시달리고 에어컨도 없는 후덥지근한 공기와 가끔씩 왕복하는 물건파는 예쁜 승무원 아가씨(차안의 모든 승무원은 여자)의 입담 덕분에 잠을 잘 수는 없었다.

광동성 광쩌우(광주)는 5,800만의 성 인구중 600만이 살고 있다 한다. 하늘을 나는 것은 비행기, 네발 달린 것은 책상, 이것을 제외한 모든 것들이 요리의 재료로 사용된다는 광동요리. 소주에서 낳고 항주에서 놀고 광주에서 먹자는 얘기가 전해져 오고 있는 그 유명한 광동요리를 우리는 그날 저녁 본고장에서 처음 먹어봤다. 배불리 먹고 나니 집안 식구, 동료, 학생들이 그리워지고 그들과 이자리를 함께 할 수 없음을 서운한 마음이 드었다.

전화를 걸기위해 교환을 불러 R.O.K South Korea 인천시를 얘기해도 그녀는 Korea의 국제지역번호를 모르겠다 한다. 찾아보라고 재촉하는 나에게, 그녀는 엉뚱하게도 오스트레일리아의 전화를 연경해 주고 말았다.

88올림픽과 자오즈민의 핑퐁사랑을 아무리 얘기해도 금시초문이라는 듯한 그들의 모습에서 폐쇄된 사회의 현실을 생각했고 오늘 아침 조간신문대위의 어제 신문을 펼쳐들면서 여러가지 생각에 잠겼다. 황하강 72열사능, 손문 기념관, 월수공원, 진해루, 육용사, 그리고 진가서원등을 둘러봤다.

1924년 제 1차 국공합작 장소로 사용되었던 손문 기념관은 못을 사용하지 않고 지은 특이한 양식의 목조 건물로서 1929-1931년의 3년에 걸쳐 완성된 4792석의 회음(울림소리)이 없는 원형극장이었다.

26일. 일행을 태운 비행기는 정쩌우(정주)비행장에 내렸다. 주변 활주로엔 자전거를 타고 놀던 동네 아이들이 소음 때문에 자전거에서 내려 귀를 막

고 트랩을 내려 서는 우리를 쳐다볼 정도로 시골스러운 곳에 위치해 있었고, 재미있는 것은 주변에서 자유롭게 거니는 것과 사진촬영이 허용되었던 것이며, 우리는 기차역을 통과하듯이 걸어서 공항을 나왔다는 것이다. 비행장에서의 사진 촬영은 북경 공항에서도 마찬가지로 허용이 되었다. 사흘후 이륙할 때 그 비행장 우측 간이 활주로에 100여대의 군용 비행기들이 격납고도 없이 배열 되어 있는것을 보고 군용 비행장을 민간항공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았다.

다음날 아침 중원의 고도 뤄양(낙양)엘 갔다. 중국의 4대 발명품 중 하나인 종이를 발명한 채륜의 고향이 바로 낙양이라고 했다. 송능, 관림, 주나라가 서자상(은)나라 임금의 아들인 백이와 숙제가 고사리만 먹고 지내다 죽었다는 수양산(중국의 산 개념은 구릉지대였음)을 바라보고, 최초로 중국에 불교가 들어왔던 기념사원인 백마사, 용문석굴, 봉선사, 백낙천의 사당과 묘가 있는 백원, 18년동안 두보가 살았다는 고향 공현을 거쳐 동굴집과 개방이 통제된 어느 시골시장을 둘러보고 다시 정주로 돌아왔다.

12개 왕조가 1200여년동안 수도로 사용했다던 고도 낙양은 옛 자취가 물씬 풍기는 도시였으며 목단꽃이 유명하다하여 이름붙인 목단성의 한 도시였다. 풍수 지리설에 의한 가장 좋은 입지적 조건을 갖춘 도시 낙양. 그 중에서도 뒷산인 북망산은 백미로 손꼽혀 역대의 많은 왕들의 무덤이 이곳에 위치해 있다고 한다. 우리가 죽은 자에게 북망산천 갔다고, 또 가자고 노래하는 풍습이 여기에서 기인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었다.

정주는 황하강의 중류에 위치하며 장마때의 황하물은 1/4이 모래여서 바닥이 평지보다 높아 자주 범람한다고 한다.

그래서 황하를 잘 다스리는 임금이 으뜸으로 손꼽혀 왔는데 모택동은 권력을 장악한 후 지면보다 10m 높게 제방을 쌓아 그 뒤 약 50여년 동안 범람이 없었다고 한다.

5월 28일. 아침 일찍 중국 고대 성벽인 상나라때의 흑벽을 구경하고 CA3150편을 이용하여 북경으로 향했다.

북경!

점심을 먹고 이화원으로 향했다. 청나라때 인공 호수를 만들며 파낸 흙으로 산을 만들고 그 위에 지은 여름 별궁 이화원. 그리고 호수 곤명호. 이것은 바다인지 호수인지! 끝이 안 보이

고 한쪽 구석에 떠있는 옥으로만 깍아 만든 우람한 배 한 척. 1860년 제 2차 아편전쟁으로 파괴된 이곳을 1880년 서태후가 섭정할 당시 군함 건조비를 유용하여 재건했고, 그로 인해 1894년에 일어난 청일 전쟁에서 패했다는 일화가 있다.

다음날은 3대인 영락제부터 최후 숭정제까지 13명 황제의 묘가 있는 명 13능과 지하 궁전, 그리고 흉노의 침입에 대비한 방어벽으로 진시왕부터 쌓기 시작하여, 명나라 때 몽고의 재침입을 두려워하여 확장 강화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 만리장성을 가봤다. 전 길이 6700Km(중국은 5Km를 10리라 함)로 우리의 계산 방식으로는 약 일만 육천리나 되며 사내중 이곳을 다녀가지 않는 녀석은 진정한 남자가 아니다라는 말이 일반화될 정도로 많은 중국인들이 찾는 명소였다.

점심을 먹고 40만㎢로 세계 최대의 넓이를 자랑한다는 중화 인민공화국의 상징인 천안문 광장, 그 앞의 인민영웅 기념비, 모주석 기념당, 인민 대회당을 비가오는 중에 돌아보고, 17C부터 내려오는 유명한 한약방 동인당, 외국인 전용 백화점인 우이상점, 그리고 유명한 자금성을 구경했다. 한 마디로 백문이 불여일견 이라는 속담이 실감나는 날이었다. 자금성은 면적 72㎢의 명, 청대의 궁전으로 1924년까지 부의황제가 13년간 생활을 한 곳이며 약 9천개의 방이 있어, 태어나면서부터 매일밤 방을 옮겨 다니면서 잠을 자서, 모든 방을 다 돌고나면 27세가 된다고 한다.

동인당을 갈 때의 일이다. 안내원이 한가한 도로를 이용한다고 하면서 우리를 골목길로 안내했는데, 그만 길을 잘못들어 한참을 주택가 사이를 헤매야만 했다. 덕분에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 했다. 천안문 바로 뒤의 주택이 있는데 5~6집 건너 한 칸 정도씩의 공중변소가 있었고 골목마다 빨간 완장을 두른 아주머니나 아저씨들이 의자를 내다놓고 앉아서 우리를 유심히 바라보기도 했다. 안내원에게 여러번 물어 안 사실인데 감시원이라 했다.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하루씩 그 일을 하는데, 임무는 낯선사람이 방문하거나 손님이 오면 확인하여 당에 보고하는 일이란다. 그동안 퍽이나 자유스럽게 여행하면서 우리와 별다를바가 없구나 하던 우리에게 문득 북한의 5호 담당제와 같은 공산주의의 감시체제가 떠올라, 이제까지 우리를 감시해 왔구나 생각하니 등골이 오싹하기도 했다.

저녁식사를 하고, 서울에서 알아 간 중국의 몇몇 에스페란티스토에게 전화를 했으나 연결되지 못했다. 대부분의 중국 가정에는 전화가 없었고, 직장의 전화 번호였던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북경 방송국에 근무하는 분과 연락이 닿았다. 방송국에서 집으로 연결된 전화가 있었기에 가능했었다. 우리가 묵고 있는 호텔을 알리니 반갑다고 하면서 기다리라고 했다. 그동안 사용했던 언어는 고작 호텔에서의 영어와 안내자들의 조선어여서 직접 시민들과는 접촉할 수 없었는데(시민들은 거의 영어를 몰랐다)중국인과 자유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쁨에 사로잡혀 잠깐을 지루함속에 기다려야만 했다. 류링이라는 약 50세 정도의 신사가 방문한 시간은 저녁 10시 경이었다. 약 한 시간동안 낯선 지역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느끼지 않은 채 이야기하고 있자니 처음 만난 그분이 다정한, 그리고 자주 대하던 어른같게 느껴져서 눈물이 핑 돌 정도로 에스페란토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언어를 통한 평화주의를 부르짖는 그 사상에 무척 가슴이 벅찼다. 이른바 '일(一)민족 이(二)언어주의' 한나라 국민은 자국어와 국제어 에스페란토를 구사하자. 자국에서는 자국어를, 해외에 나가면 에스페란토를 사용하면, 세계인이 하나같은 공감대를 느끼고, 또 여러 언어를 섭렵해야 한다는 언어 콤플렉스등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세계인이 한 가족임을 느껴 인류평화운동에 이바지한다는 그 이념을 하루 빨리 온 인류가 실현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다.

31일 상해

1932년 윤봉길 의사가 일본 전승 기념식전에 폭탄을 던진 곳. 지금은 노신공원이라 개명된 홍구공원. 한고조 유방때 주석을 모두 캐 버려서 유석에서 무석으로 개칭되었다던 무석. 중국에서 세번째로 크다는 호수 태호. 지금은 개인의 가정집으로 변해버린, 그러나, 한국손님들이 거의 매일 찾아와 골목길이 항상 바쁜 상해 임시정부 건물인 목조 2층집을 견학했다.

무석에 갔을 때의 일이다. 열차에서 내려 관광버스로 옮겨탔다. 차가 움직이자 안내석에서 일어난 현지 여자 안내원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이내 우리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남한에서 오신 선생님들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등골이 오싹해진 우리들은 한동안 벌려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 우리들의 표정을 읽은 그 안내원은 다시 말투를

바꾸어 이곳 저곳 안내를 하기 시작했고 의구심속에 목적지까지 도착한 우리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그녀의 내력에 대해 알게 됐다. 평양 근처에서 태어나 북경에 사는 언니집에 놀러왔다가 한 공무원과 눈이 맞아 결혼한 지 3년이 안돼서 아직도 말투가 바뀌지 않았다는 그녀는, 평양시절 남한방송을 몰래 들어 익힌 솜씨로 3년전 유행했던 가요 한곡을 물러 박수를 받기도 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남,북한 체제의 비교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 말이 알려지면 다시는 북한의 친정에 못 갈지도 모른다면서도 할 말은 해야겠다고 하고서는 '공산주의는 이제 유행이 지나갔지요.'라는 말로 요약 표현하여 우리는 무척 흐뭇했다.

태호에서 뱃놀이 하는동안 친정에 관해 다시 물었다. 여러번의 반복된 질문끝에 비행기로 가면 5~6시간이면 되는데 꼭 기차를 이용해 이틀정도 간다고 했다. 1년에 두 번 정도씩. 이유는 약 6개월정도의 생필품을 모두 사가지고 가야 하는데, 비행기는 수송량에 제한이 있어, 불편을 감수하고 기차를 이용한다고 했다. 생필품은 무엇들을 준비하느냐는 질문에 또 한참을 망설이다 '된장, 고추장, 화장지까지 있지요.'하고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더 이상은 물을 수가 없었다. 다짐작이 갔기 때문이었다.

중국 여행동안 주로 안내원들과 대화를 통해 듣고 본 얘기들을 열거해 보기로 한다.

행정구역은 중앙 통제하에 성→시→자치구→현으로 구분되는데, 예를 들어 광동성은 18개시 8구 4현으로 나누어져 있다. 인구에 대해서 어느 학자는 '중국의 전 국민이 1m높이로 올라가 동시에 뛰어 내리면 지구가 깨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다. 하루 일과는 대개 오전 9시에 시작하여, 점심 두 시간을 쉬고 6시 30분경에 끝나며 한달 평균 월급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15,000원~35,000원 정도이다. 그리고 하루 3교대로 공장은 풀가동되고 있었다.

주택은 회사에서 지어주고 월세를 받는 국영주택,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개인주택, 그리고 1㎡ 당 1,400원 정도로 약 60㎡를 일십만원에 구입할 수 있는 상품집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주택난은 이곳에서는 더욱 심각했다. 한 주택에서 낮에는 노인과 손자 손녀가 생활하고 밤에는 젊은이들이 쓰는 1일 2교대의 생활을 하기도 한다.

택시는 운전석과 뒷좌석사이에 철망을쳐 놓아서, 손님을 가장한 강도를

예방하는데, 사유재산을 인정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부쩍 강도가 늘고 있다고 한다. 학제는, 국민학교 6년, 고·중학교 3년, 대학 4년, 전문대학 3년, 의과대학 5~6년,연구생 과정 3년이며, 대학의 학비는, 전에는 무료였으나 지금은 푼(%)수에따라 성적별 차등 장학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학생의 자비부담이다. 그럼에도 고졸자의 약 4%만이 진학하므로 입시 경쟁은 치열하다. 가장 인기있는 직업은, 첫째가, 무역업이고 둘째가 여행안내원인데 가이드가 되기 위한 시험과목은 지방어 하나, 북경어(국어), 외국어중 하나, 이렇게 세가지가 필수적이다. 취업은 대학등을 졸업하면 국가에서 전원 배치하는데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가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한다.

중국시내의 자동차는, 대부분이 일본에서 수입한 것이었다. 두칸으로 연결된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애띤 모습의 처녀와 미니 스커트나 치마 차림으로 자전거 타는 여성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중국의 인구정책은 매우 엄격하다. 도시 거주자는 1명, 농촌 거주자는 일손때문에 2명까지 자녀를 허용하고 위반한 사람에게는 모든 혜택을 박탈하며 자녀중 정상아가 아닌 경우는 한 명 더 낳을 수도 있다. 1980년대부터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일부의 토지를 나누어 주어 경작권(소유권이 아님)을 주었으며, 해마다 정부가 정한 일정한 소득을 세금으로 납부한다. 흉년이 들어 어려울 때는 지세를 안내고, 정부에서 쌀을 지급하기도 한다. 농지 경작을 위해 한 가구당 1명정도만 필요하기 때문에 남은 노동력을 모아 마을마다 공장을 꾸려 나가는데 주로 시멘트와 벽돌공장이 많다.

범죄자 처리에서, 소매치기 등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자유시장 등에 수갑을 채운 채 오라줄로 묶어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얼굴을 익히게 한 후에 수감한다고 한다. 장례는 화장을 법으로 제정했기 때문에 무덤이 없다. 자신이 죽으면 화장하라는 주은래의 유언으로 사후 화장하여 비행기로 전국에 뿌렸다는 얘기가 있으며 그 후로는 모두 화장법을 따른다 한다.

분묘는 가난한 사람의 분묘를 무덤이라 하고 부유한 사람은 묘, 왕들은 능, 성현은 림이라 하는데, 중국에는 2개의 림이 있다고 한다. 문의 상징으로 공자를 모신 공림과 무의 상징으로 관우를 모신 관림이 바로 그것이다.

국경일은 4가지로 나누는데 3월 8

일은 부녀절로 오전 근무, 5월 1일은 노동절로 하루, 10월 1, 2일은 국경절로 이틀, 음력설은 3일간 휴무한다. 한편 국영기업체나 공무원은 일요일에 쉬나, 노동자들은 돌아가면서 쉬기 때문에 일요일이 따로 없다.

종교는 정주에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사원이 있고 상해에는 한국 목사가 한분 있다하며 심양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문이 있고, 묘지는 없어도 전통적인 유교 예절에 따라 제사는 지낸다고 한다. 여러 사원을 둘러봤지만, 특이한 것은 스님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물론 향내도 없었다.

결혼 적령기는 여자는 22세, 남자는 24세 이상이고 제약 조건은 없으며 연애결혼이 많아지고 있으나, 집의 소유가 가장 큰 관건으로 등장하고 있었다. 남녀간의 호칭에 있어서, 친구는 알고 지내는 사이를, 연인은 연애하는 사이를, 그리고 애인을 남편이나 부인을 부르는 단어로 쓰이고 있었다.

6월 1일

아침, 상해 홍교 공항을 이륙한 중국 민항기는 제주도 남쪽 바다위를 거쳐 오오사카 국제 공항에 도착했다. 현지안내인의 계획에 의해 일본의 고도 경도(교토)로 향했다. 깨끗하고 모든 것이 잘 정돈되어 있었다. 공항에서 피우다 만 담배꽁초를 버릴 장소가 없었다. 한 마디로 선진국에 대한 나의 첫 느낌은 그러했다. 중진국-개발도상국-선진국! 머리가 혼란스러웠다. 두시간 남짓한 비행기 여행으로 갑작스레 변해버린 문화 격차 때문인가? 타임머신에 의한 가상된 여행을 실제 경험하는 기분이었다.

경도. 760년 전에 지은 사요네긴쓰네의 별장이었다던, 호수위의 금물을 칠한 누각이 황색으로 찬란한 금각사, 군사전략 보호소로 사용됐다던 이조성, 청수사, 좌불로 세계 최대의 크기를 자랑하는 동대사(부처 코구멍이 크기만도 중학생이 통과할 수 있었음) 그리고 오사카로 다시 오는 길에 도심속의 잘 정돈된 공동 묘지(화장을 하여 단지에 담은 유골을 가족 단위로 묻어 두었음)를 둘러 보았다.

6월 3일 오사카.

저녁에 일본 에스테란티스토 주소록을 찾아 전화를 했다. 약 한 시간 가량 소요되는 거리를 택시를 타고 방문해준 한 동지의 호의때문에, 새벽 두 시까지 다방과 간이 음식점을 전전하며 대화의 나래를 폈다. 그저 같은 시대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에스페란토를 공부한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세계의 모든 동지가 한 형제처럼

느껴지는 이 기쁨을 남들은 모르리라.

북경에 이어 두번째로 만난 교토대학 공대 출신의 이분은, 이제껏 열심히 공부하고 일했다고 하면서, 머지않아 해외여행을 통해, 상호이해와 언어를 통한 세계 평화운동을 그 이념으로 삼는 에스페란토 정신을 확인해 보겠다고 하면서 주로 일본의 에스운동과 역사, 문화발달에 대해 해박한 자기 지식을 많이 얘기해 주었다. 새벽 두시가 넘어서야 내일을 위해 돌아가야 한다는 그는 호텔까지 나를 바래다 주었고, 짧은 시간에 우린 많은 아쉬움을 간직한 채 헤어져야만 했다.

일본 전지역의 성주들로부터 헌납받은 약 40만개의 돌로 건축되었다는, 풍신수길의 본가인 오사카성을 둘러보고 약간 이른 점심을 든 후 대한 항공에 몸을 실었다.

아무리 땅이 넓고 찬란한 문화를 간직했다 해도, 또 아무리 선진문화를 소유한 나라라 할지라도 짧은 10일간의 여행이었지만 나에게 있어 가장 편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은 이 나라 이 땅뿐이란 생각을 하면서, 축복받은 이 나라의 보다 나은 발전을 위해 당장 내일부터 교사로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또 곧 마주대할 학생들의 얼굴을 떠올리는 나의 가슴한 구석엔 그저 애국자(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라는 단어가 어느 때 부턴가 조그맣게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갑자기 들려오는 목소리와 낯익은 얼굴들. 명인아! 민기야! 저기 아빠가 오신다! 文元

아빠-!!

천안문 광장에서

만리장성에서 가이드와 함께

〈일본〉 공동묘지